

갑천 근처 산 깊은 곳에는 참나무 4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떡갈 둘째는 갈참 셋째는 졸참 넷째는 신갈. 첫째, 둘째, 셋째는 옥심꾸러기입니다. 삼형제는 막내 신갈이에게 비추는 햇빛과 빗물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막내 신갈이는 키도 작고 연약했지요. 그러나 신갈이는 형님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던 어느날, 길을 지나던 신갈이의 친구 꺼비가 말하기를 “넌 왜 그렇게 작아?” 신갈이가 말하기를 “글세?” 꺼비는 그때 발견했습니다. “햇빛과 물이 모두 너희 형들에게 가고있잖아.”(넌 너무 좁고 캄캄한 곳에 있어). 신갈이는 “괜찮아. 우리 형님들이 날 지켜줄 테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꺼비는 그런 신갈이를 이해할 수 없었지요.

신갈이는 길을 가다가 울고 있는 아지를 만났습니다.

“아지야. 왜 울고 있어? 하고 신갈이가 묻자 아지는 ”엄마 심부름을 가다가 길을 잃었어“ 라고 말했어요.

“무슨 심부름이었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을거야.” 하고 신갈이가 말하자 아지는 “행복이네 집에 가서 행복이가 농사지은 맛있는 과일을 가져오는 거였는데, 그만 길을 잃고 말았어. 영영.”하고 다시 울었어요.

그때, 멀리서 꺼비의 친구 독수리가 날아왔어요. 아지는 깜짝 놀라 흠속으로 숨었지요.

“하하하. 아지야. 괜찮아. 이 독수리는 너를 해치지 않아. 애는 날개가 부러져서 우리 갑천 늪지대 웅덩이 속에 빠졌는데 내가 구해줬거든. 우린 친구가 됐어. 그러니까 너랑도 친구야.” 꺼비가 말하자, 아지는 흠속에서 살짝 고개를 내밀며 “정말이야?”하고 물었습니다.

독수리가 말했어요. “내 등에 타고 행복이네를 찾아보는 건 어때?”

아지는 조금 두려웠지만 그러기로 했습니다.

혼자서 독수리의 등에 오르는 건 너무 힘들었지만, 꺼비가 아지를 들어올려 신갈이의 가지에 올려주고, 독수리가 신갈이의 가지 곁으로 가까이 가자, 신갈이가 가지를 툭하고 두드리는 순간 아지는 독수리의 날개위로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자, 이제 출발!”하고 독수리는 외쳤고, 친구들은 아지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아지는 독수리의 날개 위에서 갑천을 내려다보며 행복이네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기욤이네 집이 있었습니다. 기욤이는 친구 멧쟁이랑 놀고 있었는데, 아빠가 천살, 엄마가 만살로 돌아가신 기욤이는 무척 씩씩해서 항상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욤이와 친구가 된 멧쟁이를 생각하자 아지는 시무룩해졌습니다.

“기욤이는 이제 또 이별을 해야하네”

독수리가 물었습니다. “왜? 친구 멧쟁이랑 잘 놀고 있잖아.”

“멧쟁이는 지난 여름부터 기욤이와 친구가 됐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름이 끝나면 곧... 하늘로 돌아가야 하거든. 그게 자연의 섭리야...”

“헉...” 독수리는 놀랐습니다.

아지는 독수리의 날개위에서 기욤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기욤아... 잘 지내고 있어? 너 요즘 거미줄 학교에 다닌다면서?”

기욤이는 아지를 향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소리쳤지요.

“응. 그리고 나 방과후 수업으로 캥거루 선생님한테 권투도 배운다? 내 친구 멧젤이는 돌덩이 학교에 다녀. 거기서는 돌 부수는 법을 배운대. 이거 봐. 오늘 멧젤이가 나한테 돌로 집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 정말 멋지지 않니?”

“여기서 봐도 정말 멋지다. 나는 지금 행복이네 집을 찾고 있어. 너 혹시 행복이네 집 아니?”

기욤이는 “당연하지.”하고는 순식간에 거미줄을 행복이네 집까지 쏘았습니다.

“내 거미줄을 쪽 따라가면 행복이네 집으로 갈 수 있어” 기욤이는 스파이더맨처럼 멋지게 말했습니다.

“와... 기욤아 정말 고마워” 아지는 기욤이에게 인사를 하고 독수리 날개의 깃털을 더욱 세게 붙잡았습니다.

“여기 갑천에는 정말 좋은 친구들이 많이 사는 것 같아. 나도 갑천에서 지내게 돼서 참 좋아.” 하고 독수리가 말했습니다.

“니가 우리 친구들을 해치지만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친구가 될 수 있어.” 아지가 말했습니다.

드디어 행복이네 집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같이 형들이 뽕뽕 묶여있는 게 보였습니다.

“잠깐! 우리 저기로 가보자. 신같이 형들이야.”

독수리는 순식간에 신같이 형들 옆으로 날아갔습니다.

“어? 형님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지가 물었습니다.

첫째형은 울면서 말했어요. “어떤 아저씨가 우리를 뽑았어. 엉엉...” 둘째형은 “우리가 키가 커서 잘 보였나봐. 우리를 뽑고 여기 건물을 짓는다고 했어 엉엉... 신같이에게 가는 햇빛을 우리가 다 받고 욕심을 부려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봐.” 라며 도톨처럼 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진짜 도토리야 쿵, 하고 떨어졌어요. 묶인 끈을 어떻게든 풀어보려 애쓰던 셋째형이 물었습니다. “넌 누구니?”

“난 여기 새로 이사온 도토리야.”

모두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새로 이사를 왔다구?너 혼자?”

“응. 나혼자.”

독수리가 말했습니다. “근데 너 어째 좀... 돌맹이같이도 생겼구... 도토리라기엔 털도 있고...”

도토리야는 벌컥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 아빤 돌맹이고 우리 엄만 다람쥐야. 두 사람이 사랑해서 내가 태어났는데 그게 왜! 뭐! 뭐가 어때서! 우리 아빠를 닮아서 내가 얼마나 단단한지 맞좀 볼래?”

도토리야는 폴짝 뛰어 독수리의 머리에 꿀밤을 먹였습니다.

“아야!” 독수리는 울상을 지었습니다.

“자자, 지금 이럴때가 아니야. 일단 형님들부터 풀어주자.” 아지가 말했습니다. 독수

리, 도토리, 아지는 힘을 모아 형님들을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지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형님들, 돌아가서 또 욕심부리고 형님들만 햇볏쬐고 그럴거예요?”

신갈이의 형님 셋은 손사레를 치며 절대 그러지 않을거라고 말하고, 서둘러 신갈이가 있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자, 이제 다시 행복이네 집으로 가자.” 독수리가 말하는데 도토리도 폴짝 독수리 등에 뛰어 올랐습니다. “나도... 데려가줘.” 독수리의 깃털을 꼭 잡으면 말했습니다.

“자, 그럼 출발!” 독수리는 도토리를 놀려주고 싶어서 일부러 몸을 흔들흔들 깃털을 흔들흔들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독수리의 깃털에 있는 아지와 도토리는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으~~~~어~~~~아~~~~” 소리를 지르며 행복이네 집까지 안전하게 날아갔습니다. 멀리서 행복이네 부모님이 맛있는 과일을 잔뜩 들고 아지를 기다리고 있는게 보였습니다.

한편, 신갈이를 만난 신갈이의 형님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신갈이를 위해 자리를 양보해주었습니다. 그렇게 갑천의 많은 친구들은 행복하게 여름을 보냈답니다.